

[사회]

“수능 작년처럼 쉽게 출제”

정강정 평가원장 “EBS 강의 내용 대폭 반영”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16일 치러지는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와 관련, “60만 명이 시험 보는데 어렵게 낼 수 없다. 쉽게 출제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수능 문답지 배부에 앞서 “수능시험은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들쭉날쭉하게 해서 안 된다”며 “작년과 재작년 수능의 기초를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수능 난이도는
▲60만 명이 시험 보는데 어렵게 낼 수 없다.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들쭉날쭉하게 해서 안 된다. 작년과

재작년의 기초를 유지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언어영역 만점자가 1만 명이 나왔는데
▲응시생 60만 명 중에 1만 명이 만점을 받았다.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60명 중 1명 풀고 2개 반에 1명이 만점을 받았다는 얘기가. 언어영역은 1교시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주눅이 들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출제단에 여러 차례에 걸쳐 내달라고 당부했다.

학교수업을 충실한 수험생과 EBS 강의를 들은 수험생이 풀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탐

구영역과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선택과목은 난이도 조절에 중점을 뒀다. 선택과목에 따른 점수 차이를 줄이도록 노력했다.

—교육방송 강의 반영은
▲작년, 재작년 반영비율을 유지하도록 노력했다. 출제는 출제위원들이 하지만 쉽게 출제해 달라고 누누이 말했다.

—수능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수험생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아 컨디션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편안하게 모의 시험이나 학교 시험처럼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연합뉴스



독감 예방접종 행렬 유행성 독감 무료 예방접종 첫 날인 13일 오후, 접종을 하러 온 노인들이 광주시 북구 용봉동 '향기교회'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 각 자치구는 이날 말까지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해 무료접종을 실시한다. /위정기자 jrwi@kwangju.co.kr

시험장 교통편 등 미리 체크해야

■내일 수험생 예비소집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소집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험생 예비소집 및 수험표 교부는 재학생 및 재수생의 경우 15일 오전 10시 출신학교에서 이뤄진다.

검정고시·타시도 졸업생 등의 예비소집 장소는 오후 2시 ▲광주의 경우 화정중에서 ▲전남은 목포·나주·순천·여수·해남·담양고 등이다.

수험생들은 수험표를 받게 되면, 반드시 수험표에 기록된 '응시영역 및 선택과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메모지와 필기구를 반드시 갖고 가서 유의사항을 메모해야 한다.

특히 시험을 치를 교실을 확인하고 고사장이 평소 익숙한 장소가 아니라면 교통편과 약도를 메모해 두는 게 좋다. 시험실 내부에는 출입할 수 없다.

한편 이번 수능시험에는 광주 1만8천211명, 전남 1만5천755명 등 광주·전남에서 모두 3만3천966명이 응시한다.

시험은 광주 30개교(시험실 705개), 전남 43개교(시험실 639개) 등 총 73개교(시험실 1천344개)에서 치러지며, 감독관은 광주 2천844명, 전남 2천914명 등 총 5천758명이 동원된다. /황태종기자 hwangtae@

수능일 시험장 200m 내 차량 통제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지는 16일 광주·국영기업체·금융기관·기업(50인 이상) 등의 출근시간이 오전 9시부터 10시로 한 시간 늦춰진다. 이날 중·고등 '학교는 임시 휴교한다.'

광주시는 수험생 등교시간대(새벽 6시~오전 8시10분)에 시내버스를 집중 배치하고, 시험장 행 안내표지를 부착하기로 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시험장 200m 앞에는 차량 진입이 통제된다. 시험장 2km 내 간선도로와 교차로에는 불법주차 차량·잡상

인 등의 접근이 금지된다.

시는 또 1교시 언어영역 듣기 평가(오전 8시40분~8시55분)와 3교시 외국어영역 듣기평가시험(오후 1시20분~1시40분)이 치러지는 시간에는 시험장 주변을 통과하는 차량의 서행운전과 경적 자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수능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수험생에게 먼저 택시를 양보하는 등 수험생의 교통편의 제공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김주정기자 jjnews@

흐린 오후 종종길음 11월 14일 (음 9월 24일) 날씨

찬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5mm 안팎의 비나 눈이 오겠다. ◇전국날씨

광주	흐리고 비/눈	6~10℃
부산	흐리고 비/눈	8~11℃
대구	구름맑음	10~11℃
대전	구름맑음	9~11℃
전주	흐리고 비/눈	5~11℃
서울	구름맑음	6~11℃
인천	구름맑음	6~12℃
경북	구름맑음	7~12℃
충청	흐리고 비/눈	4~11℃
강원	흐리고 비/눈	6~11℃
제주	흐리고 비/눈	7~11℃
울릉도	흐리고 비/눈	6~10℃
독도	흐리고 비/눈	5~10℃
제주	흐리고 비/눈	6~10℃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3.0m
남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2.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5~3.0m
목포 밀물 < 08:50 썰물 < 02:34
여수 밀물 < 04:48 썰물 < 10:25

▲해돋이 07:06 ▲해질 17:28 ▲달돋이 00:41 ▲달질 14:0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5(수)	16(목)	17(금)	18(토)	19(일)	20(월)
날씨						
최저/최고	3/13	2/13	5/14	5/15	6/14	7/13

내년 추석 항공권 오늘 예약 접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추석(9월25일) 연휴기간의 항공권 예약 접수를 14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전화(1588-2001), 인터넷(www.koreanair.com), 여행사를 통해 내년 추석을 전후한 7일(9월21일~27일)간의 항공권 예약접수를 받는다. 김포~대구, 부산~양양 노선을 제외한 국내선 정기편 26만7천126석이 대상이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기간(9월21일~27일)의 항공권을 전화(1588-8000)와 인터넷(www.flyasiana.com)을 통해 국내선 전 노선을 대상으로 예약접수를 받는다.

양 항공사는 1회 예약 가능한 좌석은 4석으로 제한했다. 항공사들은 “예약할 경우 구매시한까지 항공권을 구매해야 확보된 좌석의 자동 취소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환경영향평가 협의 미이행

관공서·기업 등 9곳 적발

광주·전남에서 대규모 공사를 벌이면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장치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관공서와 기업이 환경청에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3일 환경영향평가 협의의 맺어 실시 중인 18개 사업시행기관을 점검해 협의 내용을 이행치 않은 8개 사업장 9개 시행기관을 적발, 시정토록 요구했다.

적발된 사업시행기관은 한국토지공사·한국관광공사·한국도로공사·광주·한국관광공사·한국도로공사·광주·한국관광공사·한국도로공사·광주·한국관광공사 등이다. /임주희기자 jhlim@kwangju.co.kr

“교육파행은 정부 책임”

광주교대 교수협 성명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 박남기 교수)는 13일 광주교대생들이 정부의 초등교원 수급정책에 반발해 무기한 수업거부를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정부는 현 사태의 모든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협은 또 “교육부는 지난 몇 년간 초등교육의 질을 올린다는 명목으로 교대 정원을 늘렸다가 감사원·기획예산처 등이 반대하자 채용규모를 대폭 축소해 교대를 파행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 같은 난맥상은 교육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교대 전 구성원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어 “교육부는 학생들이 안심하고 초등교사의 자질을 갖춘 수 있도록 학급총량제 도입 철회, 초등교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교원 중장기 수요결정위원회(가칭) 구성 등 구체적인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수협은 또 “상황이 어려울수록 예비교사로서 본분을 지키면서 주장을 펼치는 것이 특수목적대학 학생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수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첫 모집 휴대폰학과 삼성입사보다 어렵네

삼성전자 입사보장, 전액 장학금, 매달 100만원이 넘는 생활비 지원 등 과격적 조건을 내걸었던 성균관대학교 휴대폰학과(석·박사 과정)의 첫 신입생 전형에 많은 지원자들이 몰리고 있다.

40명을 뽑는 석사과정의 경우 9대 1을 넘는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인기가 치솟자 이 대학 휴대폰학과 들어가기가 실제 삼성전자에 입사보다 힘들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3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2007년 신입생 2차 지원접수를 마감한 결과, 28명을 선발하는 석사과정에 모두 266명이 지원해 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앞서 12명의 선발을 확정된 석사 신입생 1차 전형에 99명이 지원한 것을 고려하면, 모두 40명을 선발할 예정인 2007년 성균관대 휴대폰학과 석사과정 선발에는 365명이 지원해 9.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나타낸 셈이다.

응시자들은 ‘대학 서류전형’-‘대학 교수진 면접’-‘삼성 직무능력 시험(SSAT)’-‘삼성전자 면접’ 등 모두 4단계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특히 SSAT와 삼성 측의 기업면접은 실제 일반 삼성전자 입사자들이 보는 시험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학과 입학업무 담당자는 “1차 석사과정 합격생들의 평균 점수가 3.7에 이르고 있으며 평점 4.0이 넘는 학생들도 SSAT나 삼성 면접에서 다수 탈락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최대의 **국내·국제결혼 전문회사**

상담사 전원 국제결혼 상담사 자격증 취득한 공신력 있는 회사

- 국내결혼: 결혼, 재혼, 실버혼, 케첩식행사, 해외결혼
- 국제결혼: (베트남, 중국, 몽골, 무건베카스탄, 고비인 등) 수 천국 33개 도시, 해외결혼지시 권호항보세팀

전화: 02-382-1491, 381-2262

(주) 위딩스콜

에어컨+난방기+공기정화를 1대로

최고의 성능, 최고의 가격

신탈

080-701-7117